

SJU

교수학습지원센터 우수 사례집

Seojeong University

20
23



서정대학교
SEJEONG UNIVERSITY



01

02 page

교수학습지원센터 소개

02

04 page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03

06 page

2023학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우수사례 공유

1) 2023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2) 2023 학업동행 프로젝트

3) 2023 성과공유확산 프로젝트

- 종수다 공모전
- 공부하면 뭐하니? 공모전
- 나의 서정 이야기 공모전
- 1학기 학업동행 포스터 경진대회
- "나! 다움 학습법" 포스터 경진대회
- 서정의 꿈! 공모전
- 한국문화공유그림 공모전
- 2학기 학업동행 포스터 경진대회

C O N T E N T S



서정대학교
SEOJEO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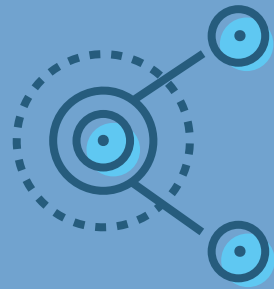
SJUI
서정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2022~2024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본 사례집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우수 사례집
(2023)



SJUI서정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01

교수학습지원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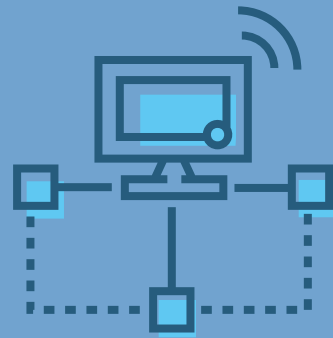


01

교수학습지원센터 소개

교수학습지원센터는 학생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수와 학생의 교육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우수 사례집
(2023)



SJUI서정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02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SEOJEONG UNIVERSITY

02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교수 지원

교원의 교수 및 수업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최적의 교수법 관련 교육과 자율 연구 공동체, 교수법 교외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법 교외연수

교원의 교수법 향상과 전공별 최신내용 학습을 위한 전임교원 대상 교외연수 참여 지원

교수법 콜로키움

교원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의 특성(전공,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교수법 세미나 프로그램

교수학습 연구공동체

자율적으로 선정한 교수법 주제 연구를 위한 교원의 학업공동체 프로그램

교원 핵심역량진단

본교 교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에 활용

티칭컨설팅

교원의 수업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한 강의 질 개선 지원

혁신적 교수법 운영

PBL, IC-PBL, FL 등의 혁신적 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지원



학생 지원

학생들의 전공학업 수행능력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과 관련된 기초진단,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역량강화 프로그램

재학생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초학습능력진단 및 향상교육

신입생 대상 국어, 영어, 수학, IT영역의 기초학습 진단 및 기초학습 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

성과공유확산 프로그램

글쓰기, 포스터, 포트폴리오 등 학습법 및 창의성 분야 공모전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특강, 체험, 학술제 등을 통한 학과별 전공역량 향상과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학습전략진단 및 교육

MLST-II 학습전략진단검사를 통한 본인의 학습전략진단 및 활용, 학습법 지원 프로그램

학업동행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지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UP!멘토링, 학UP!튜터링, 학업공동체 운영

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

본교 핵심역량에 기반한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지원센터 우수 사례집
(2023)



SJUI서정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03

2023학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우수사례 공유



SEOJEONG UNIVERSITY

03

2023학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우수사례 공유

1

2023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주요 추진내용

- 전공과 연계된 심화교과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이해능력을 강화
- 전공별로 요구되는 실무능력과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
- 전공 관련 직무능력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간호학과



게임영상컨텐츠과



경영과



그린식품가공과



글로벌산업공학과



글로벌융합복지과



동물보건과



빈려동물과



뷰티아트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상담과



소방안전관리과



스마트자동차과



유아교육과



응급구조과



의료코디네이션과



자동차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항공관광과



휴먼케어서비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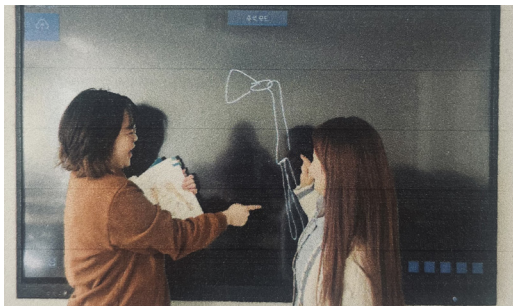
2023 학업동행 프로젝트

주요 추진내용

- 지도교수와 멘토링을 통한 대학생활 적응 및 상호교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선·후배 및 동기간 1:1 스터디그룹 프로그램 운영
- 공동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학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전공학습, 자격증 준비, 독서 토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짐



학up! 멘토링



학up! 튜터링



학업공동체





2023

성과 공유 확산 프로젝트

주요 추진내용

- 전공 및 직무관련 학습결과, 창의성 등에 대한 성과공유
- 교과과정의 교수학습 우수사례 공유
-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주제의 공모전 진행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증진 및 수업에 대한 흥미유발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종수 다 공모전

대상

간호학과

별을 사랑하는 아이

새싹이 첫 잎을 틔우고 은은한 봄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2023년 3월이었다. 나의 설레는 대학생살이 시작되는 달이었다. 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서정대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마나 설레고 기뻐했는지 모른다. 처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한다.

개강 첫 주, '삶과 철학'이라는 과목의 첫 시간이 다가왔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요, 간호사로 사는 것은 나만의 인생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별을 사랑하는 아이와 별을 아는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듣고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다. 대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설렘만 가득하고 어리둥절한 나에게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인지 생각할 첫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별을 사랑하는 아이와 별을 아는 아이 중 나는 어떤 아이가 될 수 있을까. 간호사가 되고 싶은 나에게 간호를 사랑하는 아이와 간호를 아는 아이 중, 나는 간호를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교수님께서서는 매 수업 시간마다 문제 제기와 철학적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셨다.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등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생각

해 보지 않고 지나쳤던 문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스스로 문제 제기에는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이후 조원들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했다. 조원들의 의견을 발표한 후 반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 결과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조뿐만 아닌 다른 조원들의 생각도 알 수 있었다.

토론을 한 후 오늘 토론한 주제와 맞는 철학 수업을 진행해 주었다. 문제 제기에는 대해 철학자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었다. 그 후 제기된 문제를 간호사라는 직업에 연계하여 설명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던 시절 실제 사례를 토대로 설명도 덧붙여주었다. 교수님께서 간호사 생활 중 느끼신 생각도 말씀해 주었다. 나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 내가 간호사로 일하게 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간호를 하게 될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간호사로서 간호 지식을 얻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호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다. 별을 아는 아이가 아닌 별을 사랑하는 아이처럼 내가 간호를 사랑해야 간호사라는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간호사로 일을 하다 생기는 어려움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다.

누구나 인생철학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직업인 만큼 더욱 자신만의 인생철학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이며, 윤리적 문제 속에서 고민을 해야 할 일이 많다. 나이트게일의 간호 철학인 '간호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말처럼, 간호사로서 자신만의 사명이 있어야 한다. 그 사명의 토대를 이 수업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매주 강의를 들으며 사고의 확장이 가능해졌다. 단순히 그렇겠다고 생각해 오던 윤리적 물음들에 대해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과 토론도 할 수 있었다. 나와 다른 견해를 들으며 '그건 잘 못 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놓친 부분을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견해가 바뀌기도 했고 서로 토론을 하며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었다.

'삶과 철학' 강의는 교수님의 추천대로 강의를 먼저 들은 후, 강의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 교재를 읽는다. 교재를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등장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ppt 자료를 함께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 강의를 듣고 단순히 철학자의 견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와 여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접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데 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

'삶과 철학'수업은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간호사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닌 간호사로서 성품과 인격을 배우는 첫 걸음이 되는 수업이다. 이 수업을 대학교 새내기인 1학년 1학기에 처음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리둥절 할 대학교에서의 첫 시작에서, 나의 인생철학과 직업철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유익한 수업이었다. 철학적 사고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인생에서 얼마나 될까. 이 수업을 계기로 앞으로 나의 인생철학과 가치관, 직업에서의 윤리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여러 문제에 대한 철학적 사고와 다른 사람의 다양한 견해도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단순히 수업을 듣고 암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토의를 하면서 나의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주는 수업이었다.

이 수업을 통해 얻은 '별을 사랑하는 아이'라는 마음가짐을 간호사가 되어서까지 간직하고 싶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소극적 자세로 주어진 문제에 당황하기보다 끊임없는 철학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나를 기대해 본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탐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되어 좋았다. 이 수업의 내용은 간호학과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서정대학교의 모든 학생들 누구든지 이 수업을 듣고 별을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삶과 철학 / 간호학과 / 강효영 교수님

항상 눈을 반짝이며 수업에 귀 기울이던 학생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코람데오 신설 동아리를 통해 봉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귀한 친구입니다. 삶과 철학 수업을 통해 '환자를 사랑하는 간호사'가 되고자 결심하였다니 그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발전과 성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철학은

똥이 아니었어?!

매번 삶과 철학 수업 시간이 되면 교실은 왁자지껄 시끄럽다. 6~7명 정도씩 모여서 조별로 토론을 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학생들만 참여하는 수업이 아닌, 그야말로 전체가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 수업은 다른 수업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때로는 학생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조별로 생각을 공유하는 토론을 하기도 하고, 팀 발표과제를 하기도 하면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끔 교수님의 배려로 쉬는 시간 없이 일찍 끝나는 과목들이 있는 반면, 이 과목은 쉬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2시간 중 10분은 꼭 쉬는 시간을 주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어떤 철학과 학생이 '철학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시험문제에 대한 답으로 딱 3글자 '똥이다'라고 적은 답안이 A+를 받았다는 말. 지난 세월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나에게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전혀 없었으며, 거부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기에 똥이라는 그 답안은 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 수업을 계기로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고, 삶의 태도나 생각하는 법 또한 많이 달라졌다. 간호 학도로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어떤 윤리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내 행동에 차이가 있음은 자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반영될 테니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필수로 들도록 짜인 학교의 커리큘럼은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선배들이 사용했던 교재를 중고로 구매하게 되었을 땐 정말이지 막막함 그 자체였다. 온갖 철학자들의 사상이 나열된 책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밀려왔으니까. 그런데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새로운 교재로 바꾸겠다고 하신 교수님의 말씀에 나는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어쩌면 외우는 게 아닐 수도 있어!'라고. 그리고 그 기대는 한 줄기 햇살을 받으며 피어났다.

새로 바뀐 우리 교재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쉽게 읽히도록 풀어쓴 책이었다. 나 같은 학생마저도 품어주겠다는 뜻인 듯하여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고, 그 어떤 과목보다 더욱 노

력하여 매 수업 연습과 복습을 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조별 토론을 통해 이야기하며 친구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상황을 가정한 후에 해당 철학자의 주장에 따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도출되는지 다각도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졌다. 그러면서 내 삶에도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나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보람되고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나 결과에 대해 흑과 백의 논리로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좀 더 많은 과정과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었다. 아무리 교재가 쉽게 쓰여 있다고는 하나, 혼자서 공부한다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책을 읽어주시며 중간중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이해가 아주 잘 된다. '아!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직업을 갖는구나!'라고 매시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 수업 시간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필수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의 모든 순간에 완벽하게 집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철학이라는 것에 흥미가 있지 않은 이상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일 것이 자명할 테니. 따라서 나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수업 시간 교수님의 모든 말씀을 녹음했다.

복습할 때마다 마치 수업을 다시 듣는 것처럼 녹음을 들으면서 복기하며 공부했다. 책을 먼저 읽어본 후 수업을 듣고, 복습을 2번 정도 하고 나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의 기틀이 잡혀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교수님께서 2시간을 내리 연강하지 않으시고 쉬는 시간을 꼭 주시는데, 그 시간 동안 학자들의 사상에 대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윤리학, 철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생각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교수님의 의견이셨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그것이 너무나도 지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또한 조별 과제에서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자를 기본으로 그 학자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민하여 퀴즈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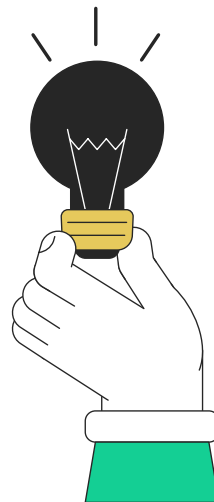
교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자세를 본받아 우리 조원들도 어떻게 하면 모든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한 끝에 퀴즈를 준비했고, 모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뿌듯했다. 내 삶의 모토는 배워서 남 주자이다.

타인을 돕기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 마냥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이다. 우리는 당연히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공부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성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을 위해 하는 공부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짚어 주시면서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인 만큼, 배운 것들을 타인의 건강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평소에도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말이지만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렁였다. 그런 교수님 밑에서 배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행운이다.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교수님은 진정 내가 만난 참된 스승이다.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다다랐기에 수업이 종료될 것이라는 아쉬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다시 수업을 듣는다면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녹음하며 더 열심히 수업을 듣고 집중하면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싶다.

삶과 철학/ 간호학과 / 강효영 교수님

항상 반짝이는 눈을 크게 뜨고 수업에 집중하던 학생으로 기억합니다. 토론과 발표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삶과 철학 수업을 통해 '배워서 남 주자'라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과 철학이 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발전과 성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종
수
다
공
모
전

최우수상

간호학과

좋은 수업을 소개합니다.

① 강의 특징

인문학의 이해 강의는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상과 문화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다. 그 내용에는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인간의 악함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등이 있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배우며 사유하게 한다. 강의는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며 PPT 자료와 함께 교수님 말씀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강의 내용의 특성상 어떤 것을 암기하고 익히는 것보단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교수님 말씀에 집중하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강의 추천 이유

수업을 계속 듣게 되면서 내가 느낀 점은 가장 교양다운 교양과목이라고 생각되었다. '교양'의 의미는 '가르치어 기르다'의 뜻과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양과목은 전자의 뜻에 더 맞지만 후자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이 수업의 내용이 교양 지식이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준 있는 소양에 대해 배운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가장 '교양다운 교양과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내가 대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교양 지식을 쌓고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배우고 싶다면 꼭 이 강의를 수강하길 바란다. 우리가 일상에서 공부를 한다면 전문지식을 배운다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한다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전공과목을 통해 그러한 과목을 배웠다면 '인문학의 이해' 교양과목을 통해 오로지 나를 위한 공부를 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수업 내용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립입인' 즉, 자신이 바로 선 후에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위기지학' '나'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하며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다.

㉓ 강의를 통해 얻은 나의 성과

강의를 통해 얻은 성과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교양 지식의 배움이다. 직접 책으로 찾아보거나 어떠한 계기로 조사해 보지 않는 한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지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다양한 이치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나 자신의 행동이나 삶의 자세에 대해 다시 회고하게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이 강의가 도와준 것 같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데에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을 때 어쩌다 보니 수업 내용에서 당시 내 고민에 대해 조언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깨달음을 느끼며 그 고민에 대한 무게를 덜어낼 수 있었다.

㉔ 강의를 활용하는 Tip

인문학의 이해 강의 내용 중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배움들이 많다. 수업의 진행 과정이 한 가지 큰 주제를 시작으로 수업의 내용이 진행되고, 결론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최종 내용에 도달하게 된다.

그 최종 내용엔 ‘물건에 돈을 쓰지 말고 경험에 돈을 써라,’ ‘문명의 편리성이 올라갈수록 윤리 상실을 조심해야 하며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아름다움이란 것엔 절대적 기준이 없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며 다양한 세상을 존중해라.’와 같은 내용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내 일상과 생각에 대입해 보며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 한다면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의의 내용이 무조건 정답인 것만은 아니다. 교수님 역시 어떠한 한 가지가 무조건적인 정답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수업을 통해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간다면 이러한 수업 내용이 내 삶에 녹아들어 활용될 것이고 진정한 내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㉕ 소감

처음 강의를 수강신청하게 되었을 때 강의의 이름만 보고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다. 인문학이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저 글을 좋아하고 문과 과목을 좋아하는 나에게 ‘인문학의 이해’라는 강의명이 끌렸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강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어쩌면 그저 지루하기만 한 과목일 수 있겠다는 작은 걱정도 은연중에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나는 교양과목 중에 인문학의 이해 과목이 가장 재밌었고 23학번인 나에게 인문학의 이해 과목이 대학교에 와서 가장 대학교 수업 같은 교양과목으로 느껴졌다. 그저 시험을 보기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한 공부가 아닌 나를 알아가고 사유하게 하는 강의였다. 또한 고등학교 수업처럼 짜인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교과서적인 수업 내용이 아닌 교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묻어나는 수업 내용이었기에 더욱 와닿을 수 있었고 많이 깨닫고 배울 수 있었다.

이 강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23학번으로 들어와서 인문학의 이해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고 소중한 수업이었다. 교수님도 유머러스하시면서 인간적하시고 대학 강의다운

멋진 강의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교양과목을 고민하고 있고 내가 앞서 말한 강의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와닿았고 궁금해졌다면, 또한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공부를 원한다면 “인문학의 이해” 수업을 수강해 보길 추천한다. 그리고 종수다를 통해 이 인문학의 이해 강의에 대해 글로 표현하면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고 상기시킬 수 있어 좋았고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었다.

인문학의 이해 / 간호학과 / 마석한 교수님

인문학 공부하는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용기 있는 실천하는 용맹정진의 시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강의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글입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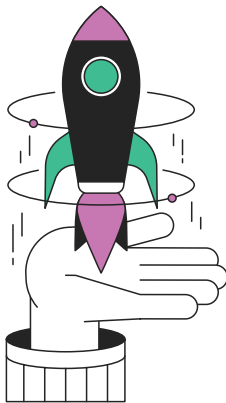


공부하면 뭐하니? 공모전

대상

사회복지과

갈때까지 가보자



1. 입학동기

나는 1982년 가평 고등학교 3학년 10월 해병대 부사관을 지원하였다. 이후 1983년 4월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 기간에 해병대 훈련소인 6정문 앞에서 조교들의 호객행위를 받으며, 군대와 사회의 경계선을 넘었다.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 전해라는 곳으로, 친구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MT 등 낭만을 찾고 있을 때, 스스로 국가의 불을 받았다. 19살에 멋도 모르고 해병대 부사관으로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군 생활 5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19년을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났다.

내가 해병대 부사관으로 조기 입대하게 된 것은 철저한 국가관도 아니다. 그렇다고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다. 중3 때 우연히 가입하게 된 학교 관악부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등지고 건방지게 “나는 음대 가지” 하고 다짐하던 것이 시골마을인 가평에 살고 있던 부모님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업을 등한시하고, 악기만 불던 나를, 또한 음대라는 학과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화 김에 장난치듯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로, 도망가듯 떠난 것이 지금의 내가 2022학번 만 학도인 성인학습자로 서정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게 된 원인의 시작이다. 훈련소를 포함한 부사관 학교 6개월, “여기는 지옥이다”라는 교관(DI)의 악다구 속에 “내가 왜 해병대 부사관을 지원했나?” 바로 입대 첫날부터 후회하고, 말로만 부사관 학교지 인간을 해병대 병기로 개조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대학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 그림고, 학력고사 자체를 응시하지 못 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래 안 되면 될 때까지”다. 제대하면 나는 무조건 학업을 다시 시작하겠다. 지친 몸을 누워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내내 다짐하곤 했다. 시간은 더디지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나는 입대할 때와 같이 벚꽃이 휘날리는 1988년 4월 제대를 하였다. 또한 우수한 성적은 내지 못 해지만, 틈틈이 군에서 준비했던 학력고사를 치르고 89학번으로 지방대학에 합격하는 감격을 누렸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입학 전 학비라도 벌여보겠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 중 사고를 당해 척추골절로 인한 장애인 판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입학도 못해보고 학업을 포기하고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해병대 부사관 5년이라는 세월이 말해주었듯, 건강하던 내가 장애인의 삶은 고통의 시작이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장애인 고통보다는 어렵게 준비하고 이루어냈던 학업포기가 나를 점점 더 힘들게 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재활훈련부터 시작한 것이 장애인관련 사업·요양원 개원 컨설팅 등 그렇게 28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이는 내가 만학도로서 서정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이고, 직장과 사업을 병행하면서 느낀 장애인당사자로서의 삶이 사회복지과를 선택하게 했던 것 같다.

2. 캠퍼스 생활

서정대학교 2022학번 만학도의 꿈이 시작된, 설레는 등교 첫날은 코로나19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서정관 304호, 드디어 2주 차 대면 수업 등교, 가평에서 학교까지 70여 키로 한 시간 이십여 분을 달려 도착 어렵게 주차를 하고, 중앙현관을 통해 3층 강의실로 이동하려면 나는 엘리베이터를 찾아 헤맸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입생 OT 불참

했던 결과가 서정관의 편의시설을 찾지 못하고 계단을 통해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강의실을 찾아올라 갈 수밖에 없었다. 척추장애로 인해 나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고층건물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다. 순간 또 학업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실에 도착, 난생 처음 보는 학우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대부분 50대의 중년 여성, 남자는 나를 포함한 광구형, 동환이, 선경이 등 4명이었다. 얼떨결에 반대표가 되고, 시작한 캠퍼스 생활 40여년 만에 느끼는 강의시간 새벽에 기상, 70여키로의 운전, 수마가 닦쳐왔지만, 교수님들과의 수업 나에게는 너무나 강한 임팩트를 주기 시작했다.

“학교 오길 잘했다.” LMS를 통한 온라인 강의 챙기고, 1주일에 한번 대면 강의 참여지만, 직장 생활 등 정신없는 사이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코로나19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우리 반 만의 MT 겸 단합 대회 등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1학년 학기에 있던 “청소년지도사”와 “평생교육사”로의 분반 나는 평생교육사를 선택하였다. 내 나이 59살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고, 과제를 하면서 졸업 후 진로 계획은 평생교육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설레고, 가슴 벅찬 만학도 1학년 1학기를 종강하고 꿈같은 방학기간, 나는 내가 민간단체 사무국장으로 있는 가평군 해병대전우회에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학과실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166명중 과 탐 이란다. 전액 등록금 면제, 59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 었다. 나와 통화하는 조교가 말하길 “내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보조받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면 다른 학우들에게 순차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라고 했다. 과탐이다. 황홀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장학금 과감히 양보했다. 바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성적증명서를 출력 가족 단 독 방에 올렸다. 평균 99점, 올 에이플러스, 4.5학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성적이었다. 우리 가족 중 가장 잘난 형님,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3성 장군으로 전역하고 단국대에서 겸임 교수로 있는 형 “사기다, 그러나 만학도로 시작한 공부, 그만큼 노력했겠지, 수고했다”, “작은오빠도 우리 DNA를 가졌군!” 잘나가는 여동생, “아빠가 이정도야” 대학 3학년 작은딸, “아빠가 중·고등학교 시절 저렇게 공부했다면 우리 삶이 달라졌을까?” 큰딸의 멘트가 올라왔다.

“네가 그 정도인 줄 몰랐다.”라는 가족들의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학업을 적당히 전문 학사에서 중단하지 않는다. 심화과정, 대학원 가능하면 석사, 박사과정 꿈이 되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자”, “안되면 될 때까지 해병정 신으로 GO! GO!”.

팀 과제 함께 하다 스터디가 된 팀 명“Oneness”, “하나 되어”의 멤버 미경샘, 승화샘, 선정샘, 용란샘, 원 팀, 원 킬이었다. 서정대학교에서 만난 보배 같은 학우들과 함께 그렇게 2학년 1학기 종강을 바라보게 되었다. 과제를 서로 나누고, 1학년 때 알지 못해 참여 못한 학교 프로젝트 참여, 2학년 MT, 축제 참여 이것이 나의 캠퍼스 생활이다. 여기서 하나 더, 온라인 선거를 통해 가평 사는 보육학우와 러닝메이트 성인반 학생회 출마, 보육누나 회장, 나 이광훈 부회장 당선, 직책에 따른 학교일 십지는 않았다. 선배들 졸업식 후원, 신입생 OT, 사회복지와 MT, 학교축제, 정신없는 학생회 시간이었다.

신입생 시절 혼란하기만 했던 학교생활의 경험을 살려, 1학년 후배들의 학교적응 프로젝트로 인해 나는 사회복지와 유명인사가 되었다. 고루하지만 후배를 생각하는 선배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강의실 복도에서 마주치는 1학년 후배들, 심화 선배들, 나는 그들을 잘 모르지만, 그들은 나를 알아보았다. MT를 진행하면서 얻은 결과물인 듯하다. 2학년 1학기 종강을 앞둔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실습도 준비하고, 2학기가 지나면, 졸업이다. 전문 학사에 사회복지사 2급, 졸업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갈 때까지 가보자’결심이 흔들릴 것 같아 학사모를 쓴 졸업사진은 포기했다. 이왕이면 박사학위 받고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사진을 찍는다. 이것이 나의 결심이다. 이왕 시작한 만학도 생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갈 때까지 갈 것이다.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심화과정을 진행하지 않는 학우들과도 헤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정인으로서 서정대 캠퍼스에서 만났다. 그들은 끈끈한 동기이며, 나의 캠퍼스 생활의 자산이 될 것이다. 물론 나도 그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지원하는 그런 동기가 될 것이다.

3. 졸업 후 진로계획

우리와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들 대부분은 늦은 나이에 다시 학업을 시작하여 강사로 전임교수로 나선 분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1학년 때부터 반대표와 총무로 만난 미경 샘과 만학의 갈증을 풀기 위해,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자주 만들었다.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출강하는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전임교수님들의 코칭은 학교생활과 만학도로서의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물론 유별날 수도 있지만, 교수님들의 코칭은 학업에 대한 이해도와 나의 졸업 후 진로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나와 같은 장애가 있는 전근성 교수님과의 만남은 더욱 나를 채찍질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석사를 위한 대학원 생활까지 끝내면 64살이 된다. 물론 올해 전문 학사로 졸업을 해도 60살이다. 물론 요즘 인생은 60부터라고는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진로는 공명불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도 알고 있다. 창업을 하지 않고 취업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하지 못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취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내 나이면 사회생활 은퇴해야 할 나이기 때문이다.

이제와 생각하니 공부가 좋다. 막상 정신없이 달려온 학교생활이 끝나면, 너무 허무할 것도 같다. 또한 만약 취업이 된다면 도 나는 취업을 할 수 없다. 장애로 인한 의료비용이 취업을 통해 받아들이는 수입보다 앞으로는 더욱 많이 들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석사까지의 학업진행이다. 그 때가 서 배가 더 고프면 박사학위를 위한 학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는 입학 전 지독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근무하던 민간단체 사무국장으로서의 봉사자의 삶도 좋았다. 그러나 나이 60살을 바라보는 시점의 우울증은 약을 먹어도 쉽지 않았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자전거 운동도 열심히 했다. 이런 우울증이 1학년 1학기를 지나면서 약을 안 먹어도, 운동을 안 해도 나를 떠났다. 담당 의사가 “학교 가기 잘했네!” 한다. 우울증을 떨쳐버린 원동력은 정신없는 캠퍼스 생활과 과제,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면 서 나의 장점인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이 돼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학위가 있어야 남 앞에 설 수 있다.” 우리 가족 중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교수형님의 말씀이다. 형님 또한 그 바쁜 해병대 장교 생활을 하면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잘나가던 군사정권하의 예비역 장성이 아니다. 그렇다고 연금만 받은 삶은 살기 싫었을 것이다. 3성 장군 연금은 노후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잘난 형님은 전역 후 제 2의 삶을 준비했다고 말한다.

이렇듯 학위 없이는 남 앞에 설 수 없는 구조다. 나 또한 같을 것이다. 장애를 가진 나이 60의 나이에 사회복지사 2급, 갈 곳이 없다. 그래서 학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 물론 학업을 진행하며 집중하는 삶은 나의 또 다른 삶이 되었기에 내려놓기가 두려웠을 수도 있다. 나는 학위를 가지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몸으로 때우는 봉사활동이었지만, 학업을 끝내면 강의를 하고 싶다. 중·고등학교 관악부 시절 후배를 코치하던 기술과, 군 생활 중 교관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교수법 등은 나도 모르게 나의 몸에 각인된 듯하다. 마침 가평군에도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평생교육센터가 300억의 공사비를 투입하며 준비하고 있다.

평생교육센터 건립공청회에서 가평군평생교육센터의 커리큘럼 보았다. 내가 학업을 마치면 봉사자로서 강의자로서 충분히 지역사회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평생교육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인생의 2막을 달려가는 그런 삶이 기다려지며 두렵지는 않다. 서정대에서의 3학기 학업은 삶에 전환기였기 때문이다. 그래갈 때까지 가보자, 학업을 중도 하차해도 갈 때까지 가다 보면 무엇 하나라도 건지겠지, 이것이 졸업 후 나의 진로계획이다.

4. 나만의 학습법

내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곳은 가평문화원이다. 그곳에서 처음 컴퓨터를 접했다. 또한 행사 진행과 행사 준비, 프로포절이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 처음부터 운이 좋았다. 가평의 작은 문화원이었기에 가능한 업무였고, 나는 그곳에서부터 컨설턴트의 삶의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기에, 장애를 가지고 투병생활을 하던 중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혼자 살다보니 이제는 종이 책보다는 E북으로 한 달에 15권 이상을 소화한다. 그만큼 산만하지만 집중력이 좋다. 물론 전문서적을 독파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역사 소설 위주의 글을 읽는 것이 다였다. 그러나 요즘은 전문서적은 아니지만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등도 본다. 이것이 나의 학습방법이다. 첫째는 집중력이다. 둘째는 사회생활에서 얻는 요점정리를 사업계획서로 풀어낸 경험이다. 다행히 만학도라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사전공지와 오픈 북이다. 사전준비하면 높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다.

잘한다고는 못하지만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과제 역시 요점정리를 바탕으로 하는 리포트 형식의 과제 제출이다. 사전조사, 요약정리,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과제, 내가 장애 당사자로서의 30여 년의 삶과 직장 생활과 사업을 병행하면서 현장복지에 대해 파악하고 경험한 것 모두를 과제 및 서술형 시험에서 나는 과감히 풀어 낼 수 있었다. 물론 교만일 수도 있지만, 반 학우들과 달리 나는 과제와 서술형 시험이 두렵지 않다. 나만의 경험에 의한 학습법이다. LMS상에서 객관식 퀴즈가 나는 더욱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중이다.

1학년 2학 과목 중 “평생학습 프로포절 개발론”을 수강했다. 교수님은 당연하듯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출 형 프로포절 사업계획서를 팀 과제로 내주었다. 우리 팀 “Oneness”는 사업방향을 잡고, 사전조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팀장인 내가 작성하였다. 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한강유역청, 가평군청 등에 프로포절 공모전에서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한 경험이 많다. 담당 교수님도 공무원 퇴직 후 강의를 나오신 경험자 열기에 우리 팀이 제출한 프로포절 과제를 바로 알아 보셨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아니었지만, 장애로 인한 장애인단체장생활, 장애인 관련사업, 요양원 개원 컨설팅과 여러 가지 공모전에 참여했던 경험과 준비과정이 현재, 서정대 사회복지과에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나만의 학습법이고,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듯하다. 또한 팀 과제를 진행하면서 함께한 우리 팀 “Oneness”만의 스튜디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지독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욕심과 집중력을 자랑하는 미경샘, 보드게임 전문 강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승화샘 등의 도움은 집중력은 강하지만 조금은 산만한 나의 학업태도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

가을 한 학기만 지나면 학우들 대부분 정든 캠퍼스를 떠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 갈 것이다. 어떤 학우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어떤 학우는 자신의 직장으로 복귀 등, 일부학우 들은 타 대학의 편입이나, 본교 심화과정을 지원할 것이다. 나 또한 결정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하고 당연히 심화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생의 2막으로 시작한 만학도의 삶, 포기할 수는 없다. 아니 당연히 포기 못한다. 주변에서 “나이 먹고 힘들지 않니?” 하는 사람보다 만학도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힘들었지만 건강했던 해병부사관의 삶, 장애를 가지고 버텨온 30여 년,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여기서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중도 포기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만학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수님, 늦은 나이에 만난 학우들, 힘들지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캠퍼스, 강의실의 존재 등 모든 것이 즐거울 뿐이다.

공부하면 뭐하니? 공모전

최우수상

간호학과

**내 인생은
서정대학교
간호학과를
합격하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1. 입학동기

고등학생부터 나의 장래희망은 간호사였다. 하지만 수능과 수시 대입전형에서 아쉽게 간호학과에 불합격하였고, 이에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성적이 따라 대학교를 진학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부모님 및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회계학과에 입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병원을 목표로 삼아 취업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이란 환경이 다른 직종보다 특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 협업하고 소통해야하는 조직이라 나의 성격과 잘 맞는지 궁금했다. 그 결과, 대학병원 취업에 성공하였고 진료 및 검사 예약해 주는 업무를 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검사실, 간호사 선생님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욱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고 병원에 취업하길 잘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반드시 간호학과에 다시 도전해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3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와 달리 이번에 간호학과 붙지 않으면 나의 간호사의 꿈은 끝이다. 라는 각오와 간절함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일하는 동안 간호사 선생님이 옆에서 꼭 합격하라고 너는 미래에 좋은 간호사가 될 거라고 응원을 많이 해줬고 무엇보다 롤모델로 삼고 싶은 간호사 선생님을 보면서 더욱 꿈을 키웠던 것 같다. 2년 뒤, 병원을 퇴사하고 대학교를 알아보던 중 지하철에서 서정대학교를 발견하게 되었고, 셔틀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서정대학교에 대해 알아보았다.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교과과정을 살펴보고 교수님들을 보면서 설레는 감정을 갖고 합격하기 위해 서류와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서정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2. 캠퍼스 생활

25살에 1학년으로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이때 의도치 않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따라서 2학년 1학기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5월에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던 나의 초심을 찾고 진지한 자세로 선서식에 임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잘해서 간호학과에서 봉사 상장과 상품도 받게 되었다. 공강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잡카페에서 친구들과 같이 팀과제를 했다. 무엇보다 서정대학교 학생상담인권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캔들도 만들고 아로마 오일선물도 받고 덕분에 즐거운 캠퍼스 생활과 동시에 학업과 과제로 인한 피로에서 힐링을 했다. 그리고 수요일에 특강에 많이 참여했다. 선배와의 만남, 임상전문가 초청 특강 시간을 통해 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3.졸업 후 진로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은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 어떤 일이든 선택하는데 있어 더 신중해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일단 먼저 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1년~2년 동안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고 이후 외래에서 근무하고 싶다. 정확히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는 생각 중이지만 아이를 좋아서 신생아실이나 소아과를 wanted 할 예정이다.

그리고 병원에서 10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의료봉사를 다니고 싶다. 면허증을 취득하기 전 일반적인 봉사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나중에 면허증을 취득하여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꼭 의료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다. 일반적인 봉사도 좋지만, 대한민국엔 취약계층이 많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봉사는 의료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더 크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졸업하게 된 이후에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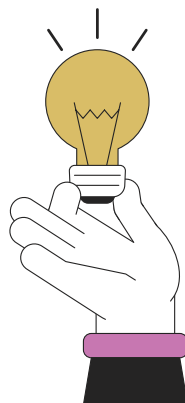
4. 나만의 학습법

1학년 때는 교과목이 거의 교양이라 쉽게 적응하고 성적이 잘 나온 편이었다.

하지만 2학년부터는 전공과목이 점점 많아지면서 특히 해부학, 약리학, 병리학 과목들 경우에는 매우 암기할 양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다. 사실 나는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나만의 학습법은 일단 미루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었다. 예습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수업한 내용은 다음 수업 시간이 오기 전 반드시 최소 1번은 복습을 하고 다음 수업에 임했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다음 수업은 또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계속 양이 늘어나고 과제도 같이 주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고 나중에는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때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날 그날 해야 할 분량의 공부를 미루지 않는 습관을 길렀다. 그리고 간호학과 특성상 암기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라 생각했다. 자주 봐야 기억에 오래 남았는데 그래서 통학하는 시간을 주로 활용했다. 그 시간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한번 더 학습하고, 오히려 시험기간에는 충분히 잠을 잤다. 자지 않고 공부를 하면 너무 졸려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학습 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되, 자투리 시간 활용을 통해 반복 학습을 했던 것 같다.

성적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유추해 보면 이런 나의 학습 방법이 통했다고 생각한다. 반복 만큼 좋은 학습법은 없고 자신이 얼마나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억력이 좋지 않더라도, 미루지 않는 습관만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해야 할 분량의 공부를 매일 반복해서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의 서정 이야기 공모전

대상

스마트자동차과

유학생으로서 서정대학교로의 여정

유학생으로서 서정대학교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제게 찾아온 모든 기회에 대한 감사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나 자신과 한국 문화, 그리고 주변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도전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니다.

제 여정은 제가 한국에서 고등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대학을 찾고, 입학 지원을 하고, 학생 비자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고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을 받아 올바른 대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을 조사한 후 우수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과 유학생 지원으로 유명한 서정 대학교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는 특히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제 관심과 일치하는 스마트 자동차 엔지니어링 부서에 끌렸습니다.

대학 입학팀의 도움을 받아 지원서를 제출하고 응답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기쁘게도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서정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흥미롭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문화, 언어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한국이민통합프로그램(KIIP)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의를 이해하고 과제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언어 장벽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로 결심했고, 교수님들과 반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차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부터 패션까지 한국 문화의 독특한 면모에 매료됐다. 운 좋게도 문화 행사와 축제에 참가할 기회를 얻어 한국의 전통과 관습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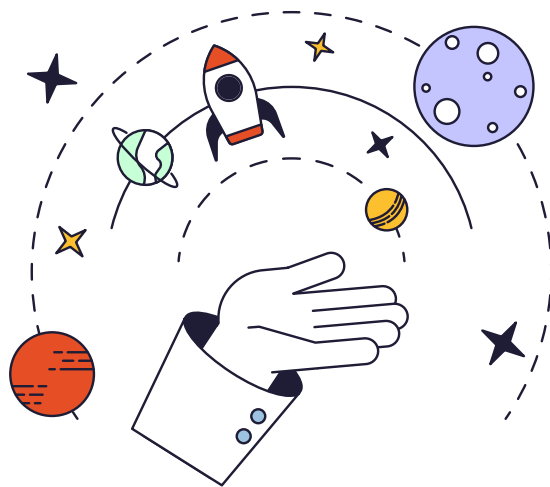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중 하나는 독도 체험 축제였습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현재 영토분쟁 중입니다. 이 축제에 참석하면서 저는 국가 주권의 중요성과 영토 분쟁이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정대학교로의 여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과의 지원이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과 연구 프로젝트 및 인턴십을 통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한국 취업 시장을 탐색하고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받았습니다. 이 부서는 기업이 정신, 네트워킹, 구직에 관한 여러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이는 저의 미래 경력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학생으로서 서정대학교로의 여정은 변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편안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주변 세계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정대학교가 제게 제공한 지원과 기회에 감사하며 제가 얻은 기술과 지식을 미래의 노력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이 제공하는 풍부한 문화와 역동적인 학업 환경을 경험하고자 하는 유학생에게 서정대학교를 적극 추천합니다.



나의 서정 이야기 공모전

최우수상

호텔항공관광과,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할

안녕하세요! 저는 Shrestha Durga Maya입니다. 저는 24
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2년 됐어요.

저는 서정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입니다. 한국 대학은 매우 매력적인 캠퍼스와 분위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생활은 편안하고 느긋하며 학생들은 쉽게 우정을 쌓고 한국인 및 다른 유학생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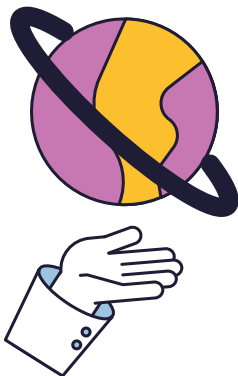
전국의 많은 학생 도시의 지원적이고 긍정적인 캠퍼스 환경으로 인해 매일 학교 가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는 외국인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일반적인 일상은 하루에 4-6시간 동안 수업에 참석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그 사이에 학생들은 카페, 레스토랑 또는 인터넷 카페를 방문하여 친구들과 어울리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종종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학교는 매우 현대적이고 역동적입니다. 한국에는 여러 대학 도시와 학생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즐기는 것 같은 국가 고유의 학생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학 동아리의 다양성과 참여 수준이 오늘날 까지도 매우 강합니다. 여행, 행동주의, 자원봉사, 모험, 과외 활동과 같은 활동은 학생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학생들과 틈새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룹 내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즐겁습니다.

한국은 공부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배우고자 하는 유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어학코스부터 전체 학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K-pop, K-drama, K-movie, K-beauty, kimchi, 거대한 다국적 기업, UNESCO 세계 문화유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학문적 우수성을 추구할 수 있는 놀라운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나의 서정 이야기 공모전

우수상

호텔항공관광과

나의 한국생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야미마입니다. 지금 서정대학교 호텔항공관광과 재학중입니다.

저는 19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수록 재미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아예 못하고, 한글을 읽고 쓸 줄도 몰랐는데, 제가 지금 한국어로 된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문화 차이 때문에 적응하기 진짜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갈 때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길을 너무 많이 잃어서 등교시간을 넘겨서 등교할 때가 많았습니다. 길을 잃을 때 한국어를 못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답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에 왜 왔는지 싶었습니다. 제 고향이 너무 보고싶었습니다. 다시 네팔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서정대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러가고 그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한국어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한국어를 편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하루에 2~3개의 드라마를 봤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드라마를 보고, K-POP 노래를 듣고,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한국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국어가 갈수록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네팔어를 까먹었습니다. 네팔어를 너무 많이 까먹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엄마랑 네팔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한국생활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놀러도 많이 갑니다. 지금은 한국이 제 고향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한국에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1학기 학업동행 포스터 경진대회

학UP! 튜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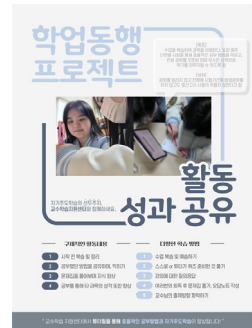
과탐활거조



서정대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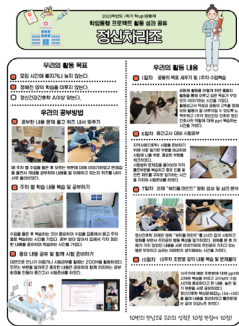


열심히 해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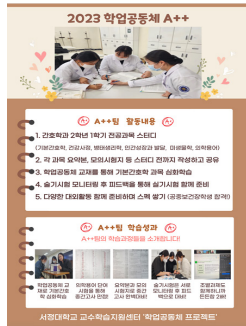


당연히 A+이소

학업공동체



정신차리조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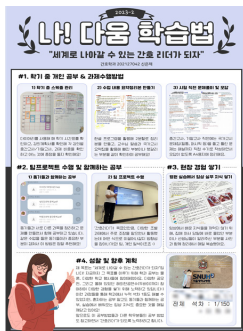


파워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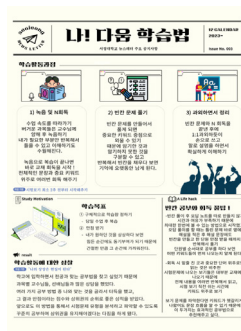


사망년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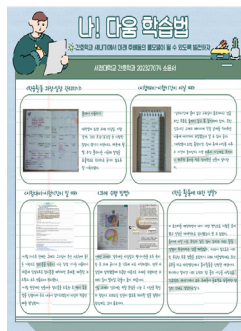
“나! 다음 학습법” 포스터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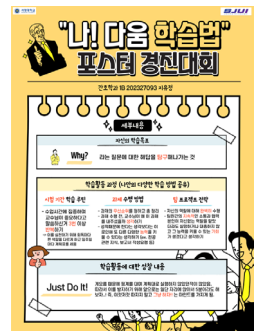
간호학과_신은제



응급구조과_김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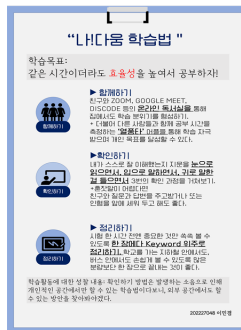
간호학과_소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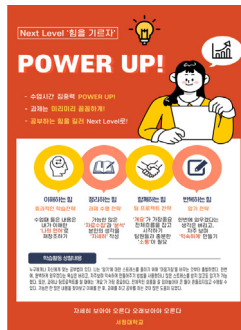
간호학과_지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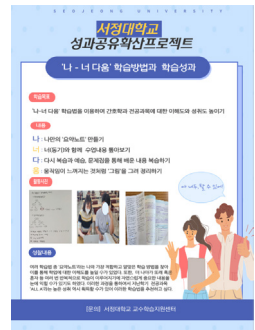
간호학과_김서연



간호학과_이민겸



간호학과_오현주



간호학과_이수현

서정의 꿈! 공모전



최우수상

간호학과

나의 팔레트

나는 가끔 특이한 상상을 한다.“세상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그런 상상을 하며 파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문득 그 하늘이 나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는 것처럼 느껴졌다.“그래!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는 없어도, 내가 간호사가 되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헌신하는, 의미있는 행동은 할 수 있겠다!”이것이 내가 서정대학교로 오게 된 첫 계기였다.

나는 나의 삶의 스케치북을 단조롭게 채우고 싶지 않았다. 이제 나의 스케치북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나는 평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누구보다 스스로를 응원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희망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이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사람이다. 간호사가 될 나의 스케치북에 희망의 색을 칠하고 싶었다. 그 시작이 되는 곳이 서정대학교였다.

서정대학교에 온 후, 다양한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서정대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만학도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한다. 만학도를 위한 공모전도 있고, 만학도들끼리 모여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만학도들은 조금 편안하고 빠르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다.

서정대학교에 입학 한 후 느낀 가장 좋은 점은 함께 나갈 힘을 키워준다는 것이다.‘힘을 기르자’라는 서정대학교의 설립 철학처럼, 학교는 학생들이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준다. 학교를 다니며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서정대학교만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꾸준히 특강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삶의 경험을 들어보고 나의 인생 스케치북을 어떻게 채어나갈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 두 번째로는, 학업공동체·튜터링 활동으로 친구들, 선후배, 교수님들과 함께 나의 인생 도화지를 다채롭게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로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힘도 길러준다는 것이었다.

서정대학교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지역사회와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양주학’이라는 서정대학교만의 특별한 수업으로 양주시에 대해 알아보며 현장학습도 나가보고, 관련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장학금도 수여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많았다. 그로 인해, 학

생들이 다양한 경험도 하고 여러 공모전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준다는 것이 특별하게 다가왔다. 나의 스케치북에는 나만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 학교, 우리 지역부터 시작한 서정대학교에서 얻은 경험들이 큰 사회로 나아갈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며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이번 학기에 해부학 과목을 들으며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해부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재미있고 우리 몸 하나하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그동안은 막연하게 '간호사가 되어 환자들을 잘 간호해야지!'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여러 과목을 들으며 점점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꿈꾸게 되었다. 앞으로 배우게 될 다른 과목들도 기대가 된다. 지금은 서정대학교를 졸업한 후, 수술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싶어 관련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다.

서정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생긴 나만의 학습법도 있다. 학습법은 시험기간이 아닐때와 시험기간일 때, 이 두 시기로 나뉜다. 먼저 평소에는 수업을 듣고,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수업내용을 '나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다.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수업을 들은 날 바로 정리를 하면 기억에 더 오래 남았다. 아무런 준비없이 시험기간에 닥쳐 공부를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시험기간 동안 사용하는 나의 학습법은 '다회독 공부법'이다. 이 방법은 처음부터 마음가짐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끼는 것이고 암기라는 단어에 압도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 먼저 암기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이렇게 전범위를 1회독을 한다. 한 단원을 상세하게 보고 바로 암기하려는 것보다 전 범위를 한번 훑고 나면 마음에 안정감도 생기고 한번 해냈다는 성취감도 생긴다. 그 다음, 2회독때에는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읽는다. 2회독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순간을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히 자주 읽고 중요한 부분은 암기까지 진행해준다. 이 방법들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다독이고, 응원하며 공부하는 마음가짐이다. 공부하기만 해도 힘든 대학생활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하는 공부는 나에게서는 너무 큰 아픔이었다. 나를 최대한 다독이며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 너에게 지지않아!'라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공부를 더 오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채워진다.

이렇게 서정대학교에서 배우고 만들어간 '경험'이라는 물감을 나의 팔레트에 하나하나 채워 넣고 있다. 서정대학교에서 모은 소중한 다양한 물감들로 나의 스케치북을 다채롭게 꾸며나갈 것이다. 누구나 서정대학교에서 자신만의 스케치북을 다채롭게 채워나가길 바란다.

서정의
꿈!
공모전



우수상

사회복지과

도전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28살, 나는 군 생활 5년을 채우고 제대 후 대학입시에 도전, 입학 전 알바현장에서 차량용 리프트 작업 중 불의사고로 87%의 장애 진단을 받은 산재장애인이 되었다. 그리고 33년의 장애인의 삶을 살았다.

재활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먹고 살기 위해 뛰었고, 그 현장이 장애인당사자로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시장이었다. 차후 요양원 개원 컨설팅까지 사회복지사는 아니었지만 25여년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삶을 살며 늘 사회복지사의 길을 생각했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학업을 갈망했었다. 그래서 나는 신여덟 살 늦은 나이에 서정대 사회복지과에 입학하였고, 만학도의 삶으로 인생2막의 삶을 시작했다.

2학년이 되어 여름방학에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쳤다. 지적 근로인 들과 함께 한 달여 시간을 신체장애로 인한 저질체력으로 무더위에 지친 몸을 가지고 함께 작업하고, 지도하며,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사회복지사의 길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비록 장애 당사자이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보다 환경이 좋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 속에서도 해맑게 최선을 다해 작업하고 있는 근로인 들을 관찰하며, '이제야 나는 왜?'라고 하며 그동안 사회복지사의 길을 갈망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 해병대 부사관 5년, 건강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살던 내가 28살에 사고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되었을 때 도, 또는 30대 후반 사업을 실패하고 전국을 떠돌 때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한 언약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나 방황하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만 왜', '나만 왜'하며 장애인으로서 불평불만 속의 삶을 살았고, 내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고 자위하며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았다.

2022학번으로 서정대 사회복지과 입학 후에도 나는 '입학동기 무엇이나?' 하고 물으면, '그냥 심심해서', '우울증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아니면 '25년여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삶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과를 선택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의 입학 동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애인의 고통의 삶을 주셨던 '예전에도', 서정대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현재에도',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의, 삶의 결과였던 것이다.

장애 당사자의 삶과 고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보다 더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예비하여

주신 것을 늦었지만 사회복지실습현장을 통해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대로 깨달음을 주기위해 하나님은 내게 서정대를 찾게 하셨고, 사회복지학을 수강하게 하셨다. 이것이 장황한 이유이지만 나의 입학동기가 될 것이다.

만학도의 장점은 입학동기에서 밝혔듯이, 만학 도는 학령기 학생들보다 인생경험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야 하는 학문이기때 인생경험은 장점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정에서 아이들만 키운 여 학우 던,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비정함을 체험한 학우가 되었던, 각종 사업이나 나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아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겪은 삶의 치열함의 인생여정은, 무시할 수 없는 경험이라 학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서정대는 출석 20%, 중간· 기말고사 60%, 과제 20%로 한 학기를 평가하고 있다. 학우들마다 각자의 사정 때문에 대학생의 평가 방법이 어렵다고들 한다. 또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객관식 평가방법과는 색다른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 하는 모습을 일부 학우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많은 학우들이 대학 평가 방법에 적응되어 있었다. 역시 만학도의 집중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만학도로서 성인학습자의 노력과 장점이라 칭찬할 수밖에 없다.

나는 대학 평가방법에 너무 익숙해 있었다. 학기 과제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 또한 서술형의 기본인 서론· 본론· 결론을 유출하는 방법에도 익숙해져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행정업무 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 프레젠테이션 작성 및 발표능력도 수준급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꼭 갖추어야 할 프로포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계획서 작성, 정산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은, 지금도 민간사회단체 사무국장으로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늘 해왔던 업무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듯 각 개인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만학도의 장점인 인생경험 들은, 어찌 보면 졸업 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학령기 사회복지사들보다 효과적인 현장적응이라는 또 다른 장점으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행정업무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사회복지실천현장은 행정업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학의 사회복지사들만의 장점을 가지고 투입될 업무들이 요즘 실천현장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예전과 다른 사회복지분야의 현장 분위기는 사회복지사현장실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 학교의 다른 학과는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만학도의 장점이 인생경험을 통한 현장적응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복지학과와 성인학습자 즉, 만학도의 장점은 인생경험을 사회복지학과 융합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펼칠 수 있는 준비된 예비사회복지사임을 말이다.

만학도 성인학습자로서, 사회복지과 2학년 입장에서 서정대를 자랑하라고 하면, 학과 커리큘럼과 교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비켜 갈 수 없을 것 같다.

첫째 자랑은 LMS영상강의와 대면수업이다. 우리 학교만의 자랑일 듯하다.

물론 타 학교의 커리큘럼도 우리 학교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성인학습

자 입장에서,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만학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학습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 첫 번째 자
랑으로 선정했다. 내가 살고 있는 가평에도 서정대 산업체 센터가 존재했었다. 가평센터를 거쳐 간 사
회복지와 선배들도 많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가평에서는 서정대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단히 유
명한 대학이다.

산업체 센터는 야간수업을 한다. 퇴근 후 주 4일을 등교해야 한다고 들었다. 산업체에서 수강한 선배
들 이야기를 들어보며, 애교심이 별로 없는 듯했다.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위해 수강하고, 본교 등
교한 적은 전문 학사 졸업식 때 한 번밖에 없다고들 한다. 2022학번인 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일환으
로 진행되는 학교 커리큘럼 따라 본교에서 토요일 대면 강의를 듣고 있다.

사회복지과 동기들 중에는 부산에서, 전북 이리에서 대면 강의를 듣기 위해 토요일 등교하는 친구들
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자격증이 없이 근무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데, 방송 통신대나 학점은행제보다 서정대 커리큘럼을 보고 멀지만 우리 학교를 선택했다고
한다. 이는 과목당 3시간 중 1시간을 직접 대면강의 통해 교수님과 만날 수 있고, 대면강의는 LMS의
강의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기에 영상수업만으로 채울 수 없는 학문에 대한 허기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나 또한 학우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방통대에서 수강하다 포기한 학우들도 우리학교 커
리큘럼이 자랑할 만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한다.

또한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산업체를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우들보다 비록 토요일의 등교지만,
캠퍼스의 낭만과 1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학우들과 우정 등 만학의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함께 등교하는 학우와 수다를 떨곤 한다. 특히 본교 등교로 인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고, MT· 학교 축제 등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만학도로
서의 지친 학업에 청량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면수업의 자랑 중 하나인 듯하다.

**둘째 자랑은 실무형 교수진에 대한 강의 평가이다. 물론 모든 강의에 들어오는 교수 분들이 다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겸임교수님들이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기관장이나 실무에서 근무하는 교수님들로 구
성되어 있어, 사회복지학의 강의가 이론과 실천현장이 함께 어우러져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또
한 두 번째 자랑이라 생각했다.

또한 과목을 맡은 교수님들의 스펙을 보면, 실천현장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사과목을 전공하신 분들
이고,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많아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강의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대부분 지루하지 않고, 만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셋째 자랑은 본교 출신 겸임교수님들의 강의다.

1학년 학기 중, 본교 출신 교수님 두 분이 우리 반 강의를 했다. 서정대에서 우리처럼 성인학습자로서
시작하여, 전문학사, 심화과정의 학사,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드디어 2023년 두 분 모두 박
사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고 계신다.

만학도로서 성인학습자로서 10년을 학업에 투자한 결과물로 보인다. 이는 얼떨결에, 아니 그냥 사회
복지과에 입학한 내게 인생 2막의 삶에 학업에 대한 갈망이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심어주었다.

1학년 때 '정신건강론' 강의를 하신 본교출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나이 60이 된 내가
심화과정과 대학원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벌써부터 심화과정 원서를 지도교수님을 통
해 제출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본교 출신 교수님을 따라 학업을 진행할 경우 늦은 나이 때문에 본교강의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
나 본교출신 선배교수님들의 만학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선배들의 만학의 꿈을 좇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학교분위와 만학 도에 대한 배려가 좋다는 것이다. 이는 서정대만이 만들어가는 만학도의 꿈과 같은 것 일수도 있다.

앞으로도 많은 학우들이 함께 만학도로서의 성인학습자로서 본교 출신 교수님들과 동일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즐길 수 있는 대학생활을 바라며 세 번째 자량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학우들과 함께하는 캠퍼스 생활이다. 나의 거주지는 가평이다. 9시 첫째시간 강의 참석을 위해 5시에 기상, 준비하고 심한 장애를 가진 만학도이기에 주차장 문제로 인해, 6시 30분에는 집에서 출발한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하루이지만, 강의시간도 좋고, 학우들과 하는 점심시간도 좋다. 또한 학우들과 함께 하는 팀 과제도 좋고, 학교 프로젝트에 팀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다.

특히 점심시간이 좋다. 우리 반 남자는 32명 중 나를 포함 2명이다. 농담이지만 꽃밭에서 공부한다. 성인학습반이다 보니 대부분 학식보다는 점심을 싸온다. 같이 함께 하는 점심시간은 진수성찬에 가까울 정도이다. 물론 남자인 나는 매일 얻어먹고 있다. 이처럼 학우들과 함께하는 캠퍼스 생활은 만학도로서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며 자량거리이다. 벌써 2학년 2학기 8주차가 지나갔다. 일부 학우들은 이번 학기만 지나면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갈 것이다.

매우 아쉬운 이별이 될 것 같다. 다행히 다른 반 보다 심화과정 지원자가 우리 반은 15명이나 된다. 2년 더 함께 학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떠나는 학우들도, 심화과정을 함께하는 학우들도 서정인으로써 소통과, 같은 길을 걷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분 좋은 미래의 만남이 그려져 마지막 자량거리로 삼았다. 서정대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서정대의 장점을 상기하면 될 것 같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성인학습자가 접근하기 쉬운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서정대의 장점에서 논했듯이 직장생활과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만학도 성인학습자에게는 특히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는 이만한 교육환경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이거나,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되는 성인학습자들에게는 우리학교 성인학습프로그램과 같은 커리큘럼을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과에서 지원하는 '일 병행 학습' 프로그램이나, 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은 성인학습자 학우들에게 단 꿀과 같은 복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취업은 포기했다. 대신 심화과정 학업을 택했다. 우리 반에 나와 동갑내기 여학우는 심화과정을 포기했었다. 그러다 학과에서 지원하는 '일 병행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막막했던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신감을 찾고, 심화과정을 택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지금은 심화과정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직접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지적 장애인로인들과 함께 근무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로서의 꿈을 나이 때문에 포기했다가 학교 프로그램으로 인해 꿈을 다시 갖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만학 도에게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서정대를 추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이번 성과 공유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성인학습자가 경험한 캠퍼스 생활 및 느낌 점을 입학생에게 소개하는 에세이'라는 세부내용을 보고 마지막으로 서정대 사회복지과를 선택하는 후배들에게 선행학습자로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나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담아 보았다. 나는 지난여름 방학 때 160시간을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습도 끝내었다. 이번 학기만 지나면 그렇게 갈망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받고 2급 사회복지사가 된다. 하지만 늦게 시작한 학업으로 인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실습은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길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예전에 장애인 시장(?)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장애인게 하면 징그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실습을 통해 지적장애인들과 한 달여 시간동안 실습생 입장에서 그들과 생활을 함께하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었다.

실습을 마치고 실습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사회복지사의 길은 이론보다 현장에 대한 적응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패스워드일 뿐이다. 아동·청소년·노인·다문화·장애인인던 전문 학사의 배움과 이론만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간다면, 분명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택하였다. 학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체험은 사회복지사는 아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로서 수많은 경험을 하였다. 물론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60년의 삶의 경험과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33년의 삶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심화과정을 거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경험과 이론의 차이를 연구하고 싶다.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이론과 철학은 초등학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33년여의 삶과 현장과 이론에 대한 갈망을 정리할 수 있게 연구하면, 차후 하나님의 예비하고, 나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장애인계의 변화를 위해서 당연히 사회복지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초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길을 갈망하며 배움의 길과 기도의 길을 병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정대 사회복지과에 입학하는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다. 만학도의 길은 쉽지는 않다. 단절되었던 학업의 길을 다시 걸어야 하는 고난도 있다. 사회복지학을 선택하는 후배들과 나와의 삶이 다르겠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인생의 경험이라는 공통점과 또한 장점이 있다. 누가 나에게 입학동기를 질문하면 난 “그냥 입학 했습니다. 심심해서”라고 말했다. 이것은 입학당시 한 치의 거짓도 없는 대답이다. 그러나 서정대에서 성인학습자로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전문학사의 학업은 나의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끄러운 글이지만 내가 경험한 캠퍼스 생활이 2024학번으로 입학하는 후배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학업을 통해 “도전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후배들도 2년여 전문학사의 학업과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마치면 체험 수 있는 과정이고, 나와 같은 목표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이것이 서정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학우들과 후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글을 마친다.

서정의 꿈! 공모전



우수상

간호학과

지금의 미래를 선택하기까지

"저의 꿈은 처음부터 간호사였습니다."

2022년에 입학한 동기로는 중학교 무렵부터 생각해왔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이다. 처음에는 그저 적성검사에 잘 맞아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흥미로웠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 더 빛나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지만, 바로 진학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제일이었던 건, 독립을 하고 싶다는 마음과 등록금이 문제였다. 어린 나이에 돈과 관련해서 강박관념이 박혀있던 터라 대출은커녕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다. 대출은 사실 무섭기까지 했다. 대학 진학보다는 등록금이라는 게 더 크게 다가왔고 그 당시에는 국가장학금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으니 말이다. 항상 꿈꿔왔지만 당기에는 힘든 우주 같은 존재, 대학이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난 일반적으로 수능을 쳐서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으니 수능은 당연하게 볼 생각이 없었기에 일찌감치 수능을 잘 보리라는 마음을 접었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원이라는 제도로 학위를 취득해서, 편입을 할까 대졸자 전형으로 갈까 수많은 고민을 했다. 고민을 했던 이유는 편입은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일 계열이 아니었기에 4년 내내 다니거나 계절학기를 수강해도 3년은 다녀야 했고, 대졸자 전형의 경우 전문대에 들어가는 하지만 1학년부터 입학을 할 수 있고 동기들과 꼭 4년을 다니는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였던 건 국가 장학금은 계절학기에 신청할 수 없기도 하고 편입 경쟁률이 굉장하거나 아예 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4년제라는 메리트보다는 대졸자 전형이 나에게 있어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해 직장 생활을 하며 여러 군데 수시 원서와 면접을 보며 어렵사리 입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학 생활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고 순간마다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잘한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원했던 삶, 하고 싶었던 미래,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거면 됐다면 위안한다. 어렵고 힘들게 얻어낼수록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다. 사실 20살이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할 삶을 지금이라도 경험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에도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라는 소리를 종종 듣는 거겠지만 말이다. 해보고 후회하나 안 해보고 후회하나 똑같이 후회를 한다면, 난 해보고 후회할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학생회, 반대표, 과목 대표, 서포터즈 등 하고 있는 게 많지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남의 인생을 신경 써주는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말이다. 적응도 못할 줄 알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동기들 덕분에 학교생활이 어렵지는 않다.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라던가? 그게 아니었다면 조금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대충 하지 않아요?"

"그런 날도 있죠. 제 마음입니다."

나는 교수님의 강의를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다. 5분의 강의를 30분 동안 들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의아했던 게 서로 어느 부분까지 공부했는지 공유를 하고 서로 응원해 주는 의미로 느껴져 스터디그룹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다. 제대로 공부해 본 적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온 신경을 학교에 쏟아야 하고, 과제를 하고, 잠보다 수업을 듣는다는 건, 매일이 스스로의 타협 싸움이었다. 예쁜 필기구도 사보고 미루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만들었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조금은 서러워져서 어느 날은 부모님께 고자질을 했다. '엄마, 동기들이 왜 이런 식으로 공부하냐고 하더라'라며 말이다. 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공부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지'라고 하셨다. 그래, 정작 공부하는 사람들은 방식이 다양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자 하고 넘겼던 기억이 있다. 왜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앓혀야 속이 시원한 걸까? 설령 보여주기 식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남들과는 다른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혹은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걱정인 듯 비난을 받을만한 건 아닌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실이라는 벽으로 당장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리 발을 내디뎌도 그늘이라 싸늘했다. 미래라는 온기가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그 벽을 넘고 싶어 악착같이 달려왔고, 막막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과거에서 벗어나 조금씩 빛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몇몇 동기들과 맞지 않아서, 여행을 가지 못해서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좌절과 우울이 올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강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세우며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간다. 사실 아직도 정확한 계획은 없다. 그래서 그런지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이 다양한 자력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취득한다. 어차피 결론은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교수'이지만 말이다. 하고 싶은 건 많다.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다만, 어떻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그건 임상경력 3년을 쌓고 나서 생각하려고 한다. 그것도 10년 뒤에 미래일 테니 말이다.

"서정대학교 좋은 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무수히 많다.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 점점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간호학과라는 폐쇄적인 집단 사이에서 발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항상 변화하려고 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변화하려고 하기에 항상 발전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직 불만사항이 있는 몇몇 소수 인원들이 있지만, 교수님도 학우분들도 다 이해가 된다. 한 번에 바뀌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니 말이다.

"서정대학교 추천 이유"

이건 좋은 점과 겹치는 부분인 것 같다. 발전하는 학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려는 교수님, 이해 못했을 때 여러 번 찾아가도 '학생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라며 친절하게 본인의 시간을 할애 주시는 교수님, 면담을 요청할 때 흔쾌히 스케줄을 조율해 주시고 학우들과의 의견을 조율해 주시려는 교수님 등등 학교를 위해 학우분들을 위해 다양하게 애써주시려는 교수님 및 직원분들이 많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직원분들, 최대한 의견 수용을 해주시려는 행정 복지처 등 항상 감사하다. 게다가 양주 시청까지 셔틀버스를 늘려주시려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동까지 받았던 날도 있으니 말이다.

한국문화공유그림 공모전



호텔항공관광학과_PHAM THI PHUONG THAO



호텔항공관광학과_MAI THI LOAN



호텔항공관광학과_TRAN THI HOAI



호텔항공관광학과_LE THI NGUYET 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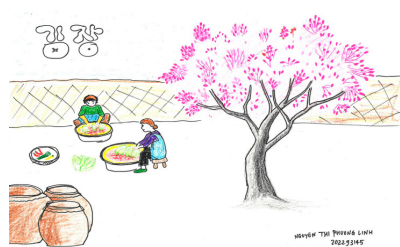
호텔항공관광학과_VOKIEU MY HOA



호텔항공관광학과_응웬 티 타오



호텔항공관광학과_THAPA MAGAR AN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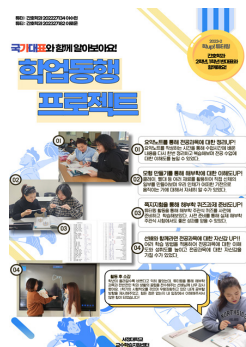
호텔항공관광학과_NGUYEN THI PHUONG LINH

2학기 학업동행 포스터 경진대회

학UP! 튜터링



서정대 수지



국가대표



Twoness



종이 마법사들

학업공동체



아마존 돌핀스



뮌트 해부리라



컴활종결자



모꼬지

SJUI서정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교수학습지원센터 우수 사례집

2023



서정대학교

교수 학습 지원 센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22-24)]



본 사례집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